운동화에 단청을?… 불교미술, 디자인이 되다

황두현 초대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갤러리 공유스페이스 선+, 9월 1~10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물에 불화문양 채색
사물에서 진리언어 찾아

단청과 불화가 디자인이 됐다.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 생활 속 사물이 단청과 불화 속의 불교문양과 만나 새로운 예술로 탄생했다. 불교미술작가 황두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갤러리 공유스페이스 선+에서 첫 초대개인전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를 개최하고 새로운 불교미술을 선보인다.

단청과 불화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이다. 오랜 동안 불화와 단청작업을 통해 불화기법을 연구해온 황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에 불화문양을 입힌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오방색의 새로운 불교문양으로 탄생한 운동화, 목탁, 전기포트 등은 신선함을 넘어 '파격'에 가깝다. 새로운 패턴과 트렌드를 기대하게 하는 '디자인'이다. 아울러 그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가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당신의 부처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문장이 이번 전시의 제목이다. 황 작가는 자신의 작가노트에서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있으니 그를 따르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안의 진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불화를 배워 그리고 단청을 한지 17년이 지났다. 진리를 얘기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 불화 속 세상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이 엿보였다. 아마도 불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중략〉 세상 만물에 진리가 깃들어 있으니 불화의 언어로 그 아름다운 형용사로 일상을 그려보고자 생각했다. 비록 내 안에서 진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세상에는 이미 너무 예쁘고, 완벽하고, 좋은 것들로 넘쳐난다. 껍질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사슴벌레가 그렇고, 신혼부부의 물 끓이 전기 주전자도 완벽하게 착하다. 언젠가는 내 안에 진리도 그릴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고 했다. 황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진리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를 미술로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언어를 찾아 자신의 미술세계와 자신만의 부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미술세계와 대중에게 묻는다. "당신의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누구'가 아닌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황두현 作, 캔버스화, 30×42㎝


황두현 作, 목탁 32×41㎝

문화재수리기술자(1081호 단청), 문화재수리기능자(3801 화공, 8818호 모사공)인 황 작가는 10년 넘게 현장에서 전통을 지켜오다 근래에 자신의 미술세계를 펼치기 시작했다. 작가는 불화와 단청 등에 들어간 문양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불화기법들을 현대의 사물에 적용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주변의 사물들에 대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들은 BAF(Buddha Art Festival)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불교미술작가전에 초대되었으며, 이번 초대개인전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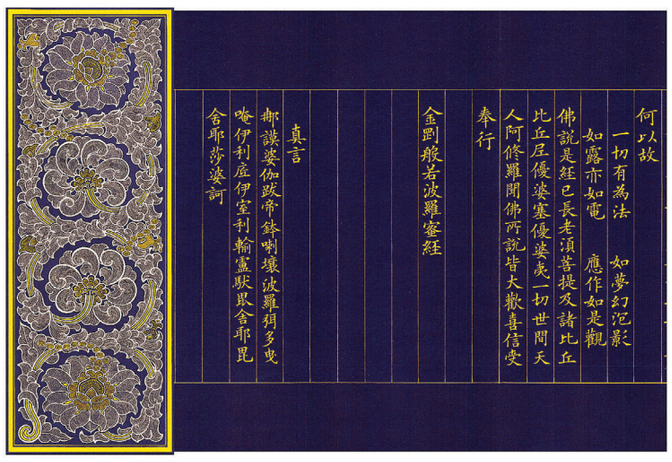
황두현 작가는 2007년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통미술공예학과(전통회화전공) 재학 중이며, 2017 제2회 현대 단청화전(용인 문화예술원), 2018 BAF 주목할 작가 초대전 "Buddha's Birthday!"(공유스페이스 선+),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Buddha Art Festival (SETEC), 2018 불화기법연구(공유스페이스 선+) 등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신라백지묵서화엄경 후 첫 사경결사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금강경 사경결사 회향전
갤러리 아리수 9.5~9.11

국내 첫 사경 결사 회향전이 열린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원장 김경호)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갤러리 아리수 제2전시장에서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결사 회향전을 개최한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사경왕조'라고 불릴 만큼 불교 전래국 중 최고의 성취를 이룬 고려의 사경을 전승하고, 선조들이 남긴 '사경'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조명,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서의 사경결사를 결성했다. 김경호 원장을 비롯해 강경애, 김명림, 박경빈, 박계준, 방태석, 송명숙, 윤경남, 이경자, 행오 스님, 허유지, 흥암스님 등 12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2018년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경결사 회향의 장으로, 동참자들의 결사 사경과 대표작 1점씩, 그리고 김경호 원장의 최신작을 포함해 총 30여 점의 〈금강경〉 사경 작품을 전시한다. 사경은 모두 체재와 양식, 기법 등에서 고려 전통사경의 정수를 계승하고 있다.


김경호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현재 전하는 유물과 기록으로 볼 때,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 된 사경 결사는 신라시대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754년부터 755년까지 19명의 대중과 함께 한 결사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완성한 것이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약칭으로 〈대반야바라밀경〉 600권 중 제577권 〈능단금강분〉으로 〈능단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선종과 교종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경전으로 현재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김경호 원장은 "사경 결사라 함은 불지(佛智)의 바다에 함께 들어감이요, 삼세제불보살의 무량한 은혜에 보답하는 선근 인연이며, 삼매의 용선을 띄워 반야바라밀을 향하는 투명한 항해요, 비로자나불의 광명 세계로 직입하는 보배로운 첩경이다"며 "바야흐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사경 결사를 맺어 금강의 지혜로써 사상(四相)을 깨부수는 여법함으로 5146개의 여의주와 35개의 마니주를 무념무상으로 꿰어 나감에 법의 그물에도 걸림이 없는 바람 같은 무위법을 증득하고자 함이다"고 결사의 의미와 취지를 밝혔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2013년 10월, 정부 지정 유일의 전통사경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 2010-5호) 외길 김경호의 사경 관련 저서 출간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출발했다. 현재까지 〈전통사경교본시리즈〉 5권과 〈전통사경교본사경본시리즈〉 2권, 〈외길 김경호 전통사경, 그 法古創新의 세계〉, 〈외길 김경호 사경작품 해제 시리즈 1 〈감지금니(天符經 · 三聖紀)〉, 〈천자문〉 등을 출간했다. 2015년부터는 전통사경의 기획, 전시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 2016년 1월, 한국미술관기획초대전으로 '21세기 한국사경 정예작가 9인 초대개인전'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2018년에는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외길 김경호 사경전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展'을 개최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서예계 세계 최고 권위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에 초대를 받고 사경 개인전과 초대개인전을 여러 차례 가진 국내 대표급 사경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창립되어 13회 회원전을 가진 한국사경연구회의 정예회원, 특별회원이고 외길 김경호 원장으로부터 전통사경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받은 직계 제자들로 이 시대 최고 수준의 사경예술가들이기도 하다.

박재완 기자

불교음악아카데미
9월 10일 개강, 수강생 모집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총괄대표 강형진)가 9월 10일 개강에 맞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찬불가 힐링스쿨과정과 ▲찬불가 지도사 과정이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찬불가지도사2급 과정(정규과정 30강 이수, 월요일 4:30)과 ▷찬불가지도사1급 과정(정규과정 30강 이수, 월요일 4:30)이다.

찬불가힐링스쿨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이 주어지고, 찬불가 지도사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과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이 발급된다.

합창단 경력 5년 이상이거나 음악경력이 있으면 노래실기, 서류, 면접심사로 오디션 통과시 '찬불가지도사2급' 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다.

접수는 동국대 평생교육원(http://bmclife.dongguuk.edu 02-2260-3728)이며, 문의는 아카사엔터테인먼트 사무국(02-415-2599)이다.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광우스님의 소중한 '나'무한 행복

본방송 수 11:30, 22:00 재방송 일 08:3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